

“신재생에너지산업 · 탄소중립 실현 거점으로” 전북도, 명품시장 육성 나선다

전통시장 국가 공모사업 2개 분야에 국비 100억원 확보

전북도,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 ·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 RE100 추진 협약도 체결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저탄소 경제 및 수소 경제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RE100의 중추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6면)

또,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될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도 함께 열리면서 친환경적이고 미래형 첨단산단을 지향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군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한국RE100위원회,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의 RE10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부터 공급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국내 기업이 RE100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새만금 개발청이 개발을 추진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2022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내 5, 6공구를 기업의 RE100 실현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발전단지는 세계최대 규모의(3GW) 태양광, 해상 풍력 및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입주기업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100MW급) 수전해 설비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스마트그린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122만7,000톤의 CO2 저감효과 및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융복합 등 에너지 신산업 선도,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착공식’도 함께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였다.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1.15km, 35만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약 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 기자재(모듈 등) 또한 지역 기자재를 사용하며, 지역주민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2년 발전이 개시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중이다”면서 “전북도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업 단지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이자 탄소중립 실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해당 시설을 양산화하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에 그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중인 시설이다.

전북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한 미등록시설 전수조사사업에 동참해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등록 및 미사용시설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면제와 지적도입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해 시설등록 간소화를 통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자진신고기간 및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미등록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가대상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개발·이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등록지하수시설 신규 발생 근절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 공사를 진행한 지하수개발·사업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요”

전북도내 여성단체가 서로 연대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일상 속 방역실천 동참 호소에 나섰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희)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전북 도민들과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마스크를 나눠주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캠페인을 지난 18일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한국부인회 전북지회,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시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희)와 각 회원단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

해 그동안 지역의료원에 빵·음료를 전달하고, 취약계층 김치, 반찬 봉사,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배부하는 등 나눔 봉사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경희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춤’으로 바꾸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위중한 시점에 도내 여성단체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캠페인에 앞장서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규조성, ‘김계 전통시장’은 활성화 지원이 선정돼 청년상인 창업공간 제공 및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20여개 소 청년상인이 창업을 계획하게 된다.

더불어, 이용자 편익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돼 2개 시장에는 주차장을 신축한다. ‘무주시장’과 ‘임실시장’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전주 신중앙시장·중앙상가’ 및 ‘남원 용남시장’은 무인시스템으로 개보수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해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향후, 전북도는 코로나뉴딜에 대응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대면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가 선정돼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 등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무엇보다 안전한 장바구니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로 코로나확진자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지역복지정책 평가 ‘최우수’

전북도, 빈곤·고령화·아동복지 사업 성과 높은 점수 받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전북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 전국적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다.

도는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2차 온라인 대면평가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역 복지 정책인 빈곤, 고령화, 아동복지 등 3가지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도는 2019년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도내 504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해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 재능기부 등 지역복지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어르신 여가문화와 건강을 ‘농어촌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운영 등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어린이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복합문화 체험시설의 부재로 대도시로 유출되던 비용과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자체사업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임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 용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캠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